



**2021년 / 7월 5주차**

**■ 연구원 소식**

**동아리 회원 모집 연장 안내(7월 29일 기한)**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일정	비고
1	기행 현대사	영상으로 선행학습 후 해당 지역 직접 답사	8월 ~ 12월	동아리 활동 희망자 추가 모집중
2	전통주 담그기	전통주 명인과 함께 전통주 담그기 시연	7월 ~ 11월	
3	전주 답사	사전 학습 이후 전주 지역 문화유산 답사	8월 ~ 12월	

※ <전북의 섬 답사> 동아리는 회원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위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은 7월 29일까지 연구원 사무국(063-286-3005)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무료 인문강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우리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요응답형 인문강좌는 수요자가 원하는 주제의 강사를 직접 파견하여 무료로 인문강좌와 만나시는 장을 열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연구원 사무국이나 송정현 연구실장님에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인문강좌

# 소담소담 (小談笑談)



### 내 손으로 만드는 인문학 강의!

소담소담은 단체, 모임, 동아리, 그룹 등을 대상으로  
듣고 싶은 강의 주제를 신청받아 진행하는 인문강좌입니다.

..... 신청방법 및 진행방법은? .....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메일 전송

1. 신청서: 전주대 HK+연구단 홈페이지([www.jj.ac.kr/hk/](http://www.jj.ac.kr/hk/))에서 다운로드
2. 메일: 전주대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jjondara@naver.com](mailto:jjondara@naver.com))

#### 진행방법


대면(오프라인)과 비대면(온라인) 동시 진행

1. 대면(오프라인): 15명 이하 / 신청 단체에서 장소 직접 섭외
2. 비대면(온라인): 20명 이하 / 구글 미트 or 줌 실시간 강의
3. 원하는 강의 일자, 교육 분야 선택 → 강사 매칭 → 조율 후, 최종 결정

※ 강의 일정 및 강사는 협의 후, 확정되고 센터 프로그램 진행상황에 따라 원하시는 강의 일자는 변동될 수 있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문의 | 063) 220-3201~3, 3207

메일 | [jjondara@naver.com](mailto:jjondara@naver.com)

주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후원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NRF  
한국연구재단

 전주대학교

본 프로그램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7)

## ■ 역사 속의 오늘

### 패자의 죽음 - 1959. 07. 31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서울을 버리고 일찌감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다음 녹음된 라디오방송으로 “서울 사수”를 외치던 이승만의 피난을 모르고 있던 대한민국 국회는 그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이 와중에 국회의 중요 서류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느라 동분서주한 사람이 국회부의장 조봉암이었다. 한강 이남으로 그 서류를 옮기느라 자신의 아내와 자식은 챙기지 못했고 조봉암만큼 걸출한 독립운동가였던 그의 아내 김조이와 처남 김송학은 납북되어 현재까지도 생사여부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 2013년 4월 16일자 <대한민국 진보의 씨앗 뿌린 조봉암의 삶> 중)

조봉암은 전쟁이 끝난 뒤 몇 해 흐르지 않은 엄혹한 시점에서 ‘평화통일’과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을 내세운 진보당을 창당했고, 신익희가 호남선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절명한 이후 야권의 단일후보로서 200만 표가 넘는 표를 얻는 기염을 토해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평화통일’ 자체가 이적성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국가보안법으로 유폐하려 들었다. 이 때 1심 판사였던 유병진이 조봉암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 자칭 반공청년 수백 명이 법정에 난입하고 그 집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주의를 통한 독립 운동을 펼쳤고, 전향한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각료로서 소임을 다했던 정치인 조봉암은 평화통일의 기치를 처음으로 치켜들었지만 결국 1959년 7월 31일 교수형으로 파란 많은 인생을 마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긴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랄 뿐이다." 그렇게 죽산은 슬프게 무너졌고 이승만 정권은 남은 가족들이 발인제도 못하고 곡도 금하게 했다.

(한국일보 2012년 12월 2일자 <서화숙의 만남> 중)

2011년 1월, 그가 죽음을 당한 지 52년 만에 대법원 판사 전원 합의로 조봉암 사건에 대해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